

학예사 국가자격제 내년부터 실시

문화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

"성보 관리·전시 효율화 기대"

문화관광부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학예사 자격제를 내년부터 실시함에 따라 올해 대부분 개관하는 성보박물관들도 전문 학예사 채용을 통한 전시기획 및 유물관리에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최초로 국가공인 자격을 주는 학예사 자격제는 박물관 미술관 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정학예사(1급~3급)와 준학예사로 구분해 자격증도 교부된다. 자격제의 시행으로 학예사의 실력을 검

증할 수 있어, 관리 강화와 대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믿고 채용할 수 있는 종료가 정립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계 성보박물관의 경우 4월 개관 예정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학예사 3명, 역시 4월 개관 예정인 수덕사 성보박물관, 송광사 성보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등은 1명의 학예사를 두고 있다. 올 가을 개관을 앞둔 월정사 성보박물관도 1명의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비해 지난해 11월 개관한 대

흥사 박물관이나 봄 개관 예정인 금산사 성보박물관은 학예사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박물관이 단순히 성보의 나열이 아닌 각 사찰의 특성에 맞는 전시기획을 통해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문화 체험 및 교육의 장이 되려면 유물 전시·관리와 보수, 사찰역사에 따른 고증 및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전시 기획 및 유물 관리·보존이 필수적이다. 전국 60여 개관사찰

의 연간 관광객 수는 3천만명, 이들에게 불교문화재를 박제된 전시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하며 이 또한 학예사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포교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은 학예사의 전문성과 함께 불교에 대한 이해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목이 불교유물을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의 한성옥학예사는 "사찰의 특징적인 면을 전시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예사를 성보박물관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야 한다"며 "학예연구실 자료실 유물정리실 등을 수장고에서 분리해 전문적인 공간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등 종합학교에서 배출되는 문화재 전문인력은 대학원까지 포함해 한해 50명 정도지만 일반 박물관에서의 채용기회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불교인력을 불교계에서 흡수한다는 전제하에 각 사찰 성보박물관에서 이들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점차 늘어날 사찰 성보박물관의 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지원이래 학예사의 기용과 효율적인 활용이 관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사찰 전통음식 맛과 영양 비결

아리랑TV 30일 '사찰음식' 방영 위성 통해 아시아 전역에 송출

스님들은 사찰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 정진할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케이블채널 아리랑TV(ch50)는 구도자들의 지혜가 빛어낸 고유한 맛의 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More Than Kimchi-사찰음식'을 30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방영한다.

된장의 구수한 맛과 호박을 갈아 넣은 된장 국수, 흥시를 넣어 만든 매콤 달콤한 흥시 김치를 비롯 갖·무우김치, 국 무침 등에 이용되는 고소나물 요리 등이 불교음식연구회 선재스님의 실습과 설명을 통해 소개된다. 또 채식 위주인 사찰 식단에서 부족해 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 각광받는 전각 요리도 선보인다.

이 프로에서 적문스님(사찰음식문화 연구소장)은 "사찰에서의 음식 섭취는 육체를 튼튼하게 하기 보다는 수행을 위해 육식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사찰음식에는 파, 마늘, 부추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찰 음식의 특징을 밝힌다.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등 국내 유명 사찰의 음식 문화를 살펴본 이 프로에서는 또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정신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기는 발우공양과 선(禪) 수행의 연장으로 일컬어 지는 다도생활 등도 다뤄진다. 특히 발우에 나눠진 음식을 먹기 전에 수행자들이 합송하는 '오관계' 의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찰 식사 예법의 경건함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임 기자(jkim@buddhopia.com)

"회원 대부분 불자 권익향상에 역점"

문화재기능인협회 6대회장 신응수씨

"무엇보다도 협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회의 위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기능인들에게 있는 만큼 자부심과 신심, 긍지를 가지고 부단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 주겠습니다."

지난 15일 제11차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제6대 회장에 선출된 신응수씨(59)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겠다는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립 11주년을 맞은 문화재기능인협회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가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협회 이름을 종전까지 쓰던 '한국문화재보존수리기능인협회'에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로 바꾼 이유도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에서입니다.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회원들의 불이익에 과감히 대처함은 물론 불심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회장은 회원들의 기능 향상과 함께 대 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협회차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올 가을쯤 개최 예정인 '기능인 인명록'을 펴내 각각의 작품에 대한 조상자 및 스승 등 계보를 밝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능별 연수교육과 문화재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이사회를 통해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신응수 회장은 지난 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대목장)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강릉에서 유림목재를 운영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불조전 53불 삼신불...' 탕화 전시

송광사 성보각, 5월 9일까지

승보종찰 송광사 성보각에서는 5월 9일까지 '불조전 53불 삼신불 오방여래탱' 특별전시회를 갖고 있다.

회귀 성보의 진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 출품된 '53불 삼신불 오방여래탱'은 원래 불조전에 봉안된 것으로, 마 바탕에 53불과 3신불, 5방여래 등 모두 61불이 7쪽에 그려져 있다. 주존불은 3신불과 오방불의 7부탱으로 중앙간에, 53불은 6쪽에 나누

어 그렸다. 이 탕화는 영조 원년(1725년)에 그려진 것으로 전체 색상은 붉은 색을 주색으로 하여 청색과 감정을 곁들여 짙은 채색이 선명한 가운데 얼룩은 밝은 살색으로 그렸으며 웃은 같은 색의 짙고 얼룩과 금니로 선을 그려 묘사하였다.

한편 송광사는 봄과 가을 두 차례씩 탕화 특별전을 열어 감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치있는 진품탱화를 일련에 공개한다. (0661)755-0407 이경숙 기자(gsllee@buddhopia.com)



송광사 불조전 탕화중 동쪽벽의 13부탱(부분).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29일 출범 선포식

건축문화엑스포 등 사업 전개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노)는 29일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축문화의 해의 막을 올린다.

'삼의 터전, 문화의 바탕'이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펼쳐질 중점 사업은 △건축문화엑스포 △한국현대건축100년 특별기획전 △밀레니엄 기념조형물 조성 △동서양 건축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아카시아(ARCASIA) 국제포럼 △내가 가꾼 우리 마을 콘테스트 △전국 건축문화자산 조사 체계화 등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펼

쳐지는 건축문화엑스포. 주제관인 '한국건축문화 5000년전'을 비롯한 '동서양 건축 미래의 건축' 등 건축의 종합문화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또한 밀레니엄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비전 2000위원회'와 연계해 기념조형물 건립단을 마련하고, 모든 건축문화 자료의 중심이 될 자료관 건립을 위한 각 자료 등을 수집한다. 또한 건축이 가장 큰 관광 자원이란 인식아래 전국의 건축문화 자산을 조사해 이를 정보화하고 외국인과 일반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지역별 건축문화기행도 연중 실시한다. 이경숙 기자

동국 국악예술단 日공연
나라시 초청, 2월2~6일

동국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국국악예술단이 일본 나라시 초청으로 '나라 100년 회관' 준공 기념 축하음악회를 갖는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나라 100년 회관에서 공연되는 이번 음악회는 민요 아리랑, 해금 협주곡 '공수밭이',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박범훈 작곡)' 등의 곡들이 연주된다. 박성진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가 지휘하며 국악관현단 50명, 참곡단 30명, 무용단 40명이 참가한다.

백제 금동대향로 제작과정 민속박물관 재현 상설전시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이종철)은 '백제 금동대향로' (국보 제287호·사진)를 제작하는 과정을 재현, 1월초부터 상설전시해 들어갔다.

이번에 박물관이 재현한 공방은 △밀랍으로 향로를 조각하는 모습 △완성된 밀랍에 진흙을 섞어 거푸집을 만드는 모습 △거푸집을 붓어 달걀 안에 있는 밀랍을 제거하는 모습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넣는 모습 △거푸집을 깨고 향로를 꺼내는 모습 △향로에 세부 조각을 하는 모습 △완성된 향로에 도금하는 모습 등 금동향로의 조형성과 제작 과정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신라 유리·금속공방'과 '가야 아철공방'도 전시되어 있어 고대 국가들의 공방과 공예술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금동대향로는 93년 부여 능산리 건물터에서 발굴됐다. 향로에는 불로장생하는 신선들과 용·봉황 등이 어우러진 이상향인 봉래산을 용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백제인의 탁월한 예술 감각과 독창성이 느껴지는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김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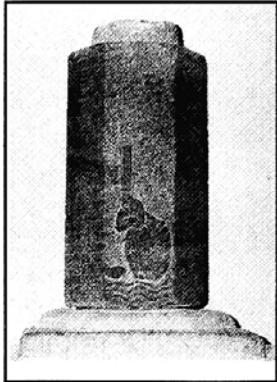
사찰음식종 하나인 '짜리버섯 튀김'.

중앙불교합창단 단원 모집

중앙불교합창단(이사장 박범훈 중앙대 교수)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등 각 파트 30명씩, 음악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으로 정수는 2월 28일까지이다.

오디션은 3월 3일 오후 1시, 중앙불교합창단은 새 단원을 보강해 보다 활발하게 불교음악 활동에 참가하며 향상된 음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02)896-2091~2

募緣文



서기 817년 이차돈 성사 추모비 <경주박물관소장>

서기 527년 신라땅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의 승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승교자인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면서,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승교가 밀방진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요.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승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정철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수취국 700047-0333069 박성일(흥륜사 주지)
농협 721015-52-239100 박성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콘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혜해 합장

종교(불교) 심학교사 초빙

진취적이고 시대적 감각이 앞선 이념으로 이 땅에 찬란한 생활불교 문화를 꽃피워온 대한불교진각종이 21세기를 준비하며 사학명문 종합 심인중·고등학교(대구)와 진선여자중·고등학교(서울)에서 인재 양성에 주력할 심학교사 약간명을 초빙합니다.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전공 및 인연

과목	전공분야	근무지	초빙인원
심학	종교학(불교)	심인중·고등학교(대구) 진선여자중·고등학교(서울)	약간명

2. 자격요건

- ① 대한불교진각종의 교법을 준수하며 중지를 세울수 있는 자
- ②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종교학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부(명함판사진부착)
- ②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 ③ 정교사 자격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 1999년 1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제출처 :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 총무부 (우 136-132) 서울 성북구 월곡2동 22번지 ☎ 02) 913-0751~4

5.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면접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전원 정사(사택) 제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리원 총무부로 문의바람.

대한불교진각종